

여론조사꽃 제4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REPORT #202307_01

ARS+CATI

제44차 ARS조사

제29차 CATI조사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제4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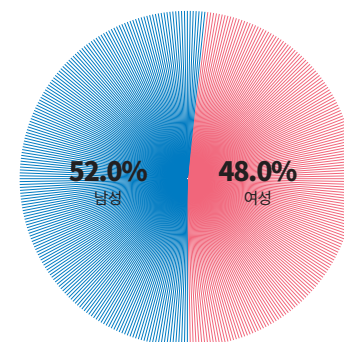
ARS & CATI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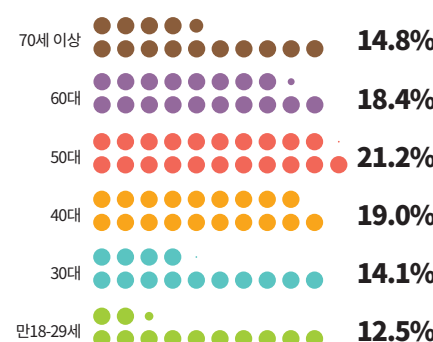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8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응답률	2.1% [총 통화시도 48,758명]
조사기간	2023년 6월 30일 ~ 7월 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8	100.0%	1,008	100.0%	1.00
	성별	남성	524	52.0	500	49.6
여성		484	48.0	508	50.4	1.05
연령	만18~29세	126	12.5	166	16.5	1.32
	30대	142	14.1	151	15.0	1.06
	40대	192	19.0	183	18.2	0.95
	50대	214	21.2	196	19.4	0.92
	60대	185	18.4	171	17.0	0.92
	70세 이상	149	14.8	141	14.0	0.95
지역	서울	197	19.5	189	18.8	0.96
	인천·경기	326	32.3	320	31.7	0.98
	대전·세종·충청	104	10.3	106	10.5	1.02
	광주·전라	98	9.7	99	9.8	1.01
	대구·경북	97	9.6	99	9.8	1.02
	부산·울산·경남	144	14.3	151	15.0	1.05
	강원·제주	42	4.2	44	4.4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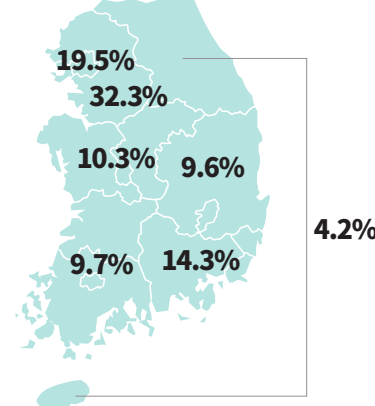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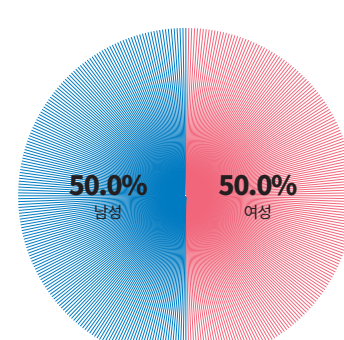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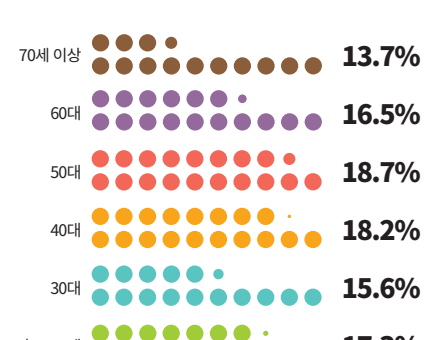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17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3년 5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6.7% [총 통화시도 6,107명]
조사기간	2023년 6월 30일 ~ 7월 1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17	100.0%	1,017	100.0%	1.00
	성별	남성	509	50.0	505	49.7	0.99
		여성	508	50.0	512	50.3	1.01
연령		만18~29세	176	17.3	167	16.4	0.95
		30대	159	15.6	151	14.8	0.95
		40대	185	18.2	184	18.1	0.99
		50대	190	18.7	199	19.6	1.05
		60대	168	16.5	173	17.0	1.03
		70세 이상	139	13.7	143	14.1	1.03
지역		서울	191	18.8	191	18.8	1.00
		인천·경기	316	31.1	324	31.9	1.03
		대전·세종·충청	107	10.5	107	10.5	1.00
		광주·전라	103	10.1	99	9.7	0.96
		대구·경북	104	10.2	99	9.7	0.95
		부산·울산·경남	151	14.8	152	14.9	1.01
		강원·제주	45	4.4	45	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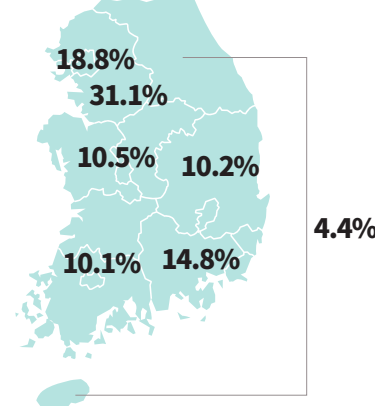
성별



연령



지역



본 조사 결과는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관 108조 규정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감도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지수(Index)는 비율과 구분하기 위해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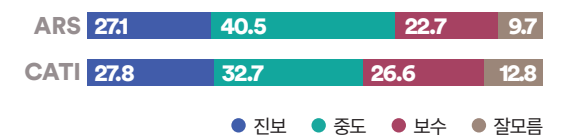
여론조사꽃 제4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

정당지지도
국정운영 평가

4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는 국정지지도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사회 현안을 ARS와 전화면접조사로 묻고 그 응답을 정리해 보고합니다.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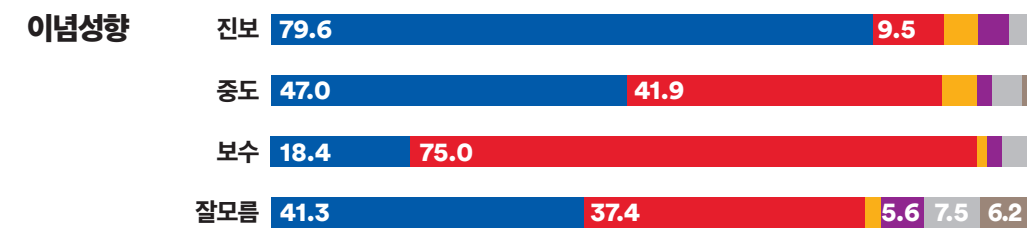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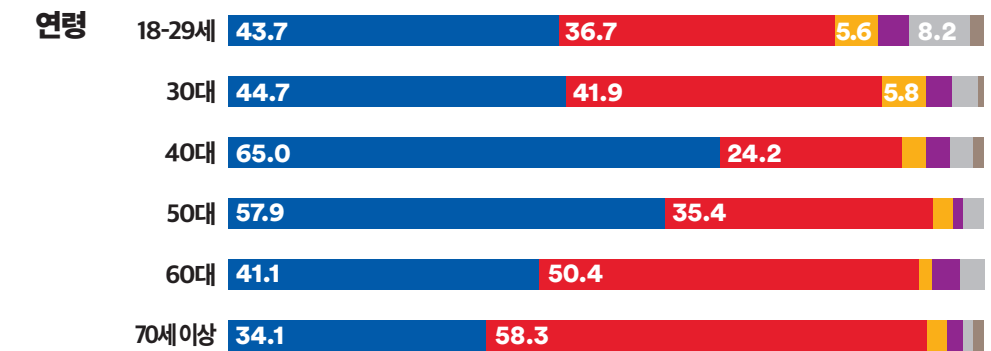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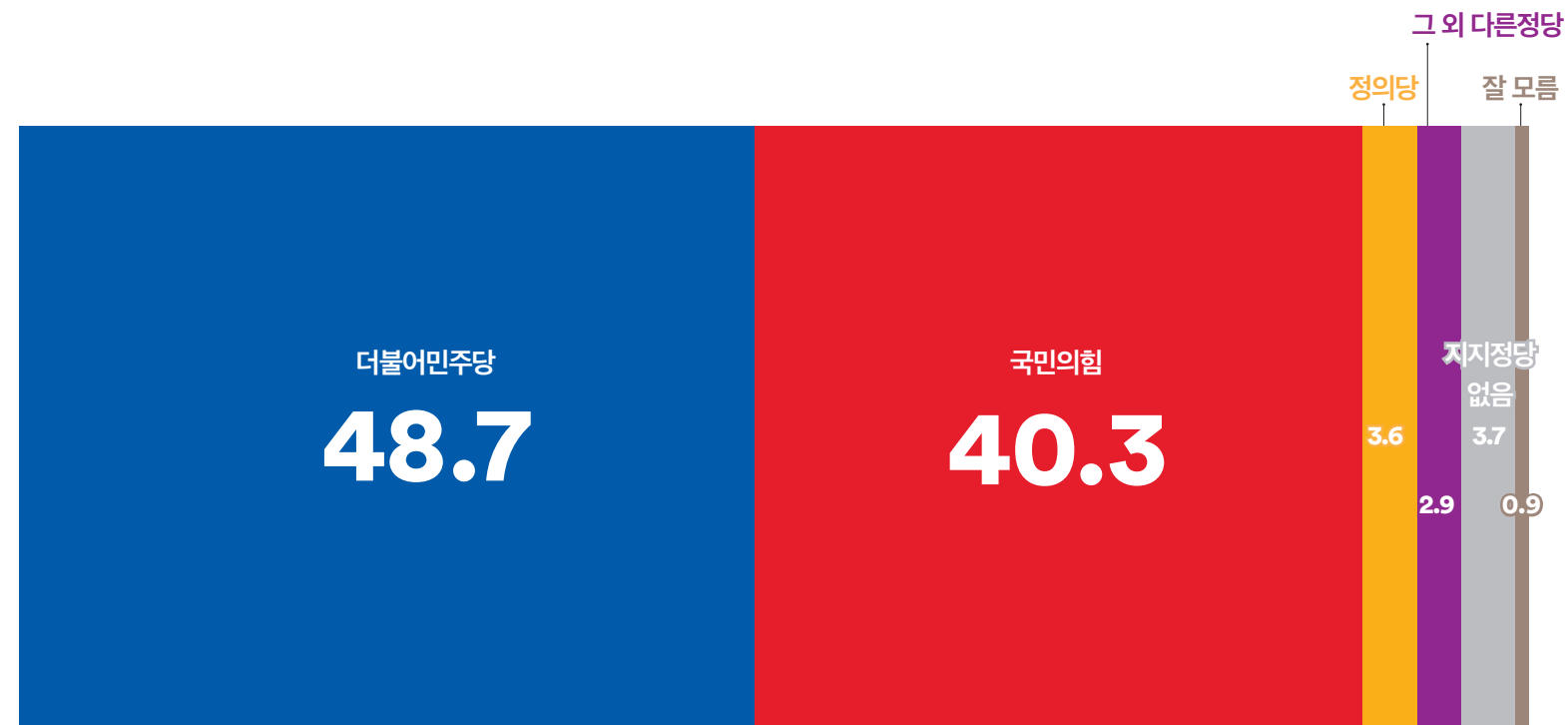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국정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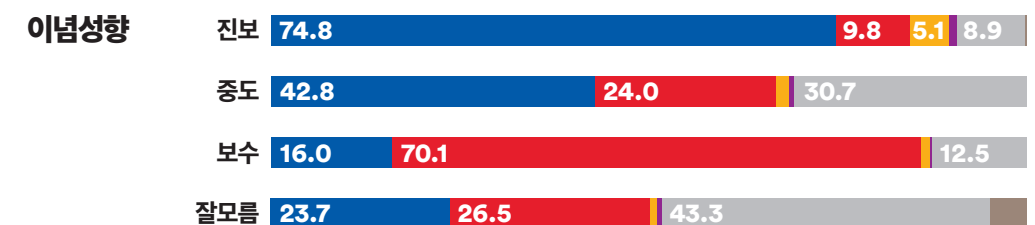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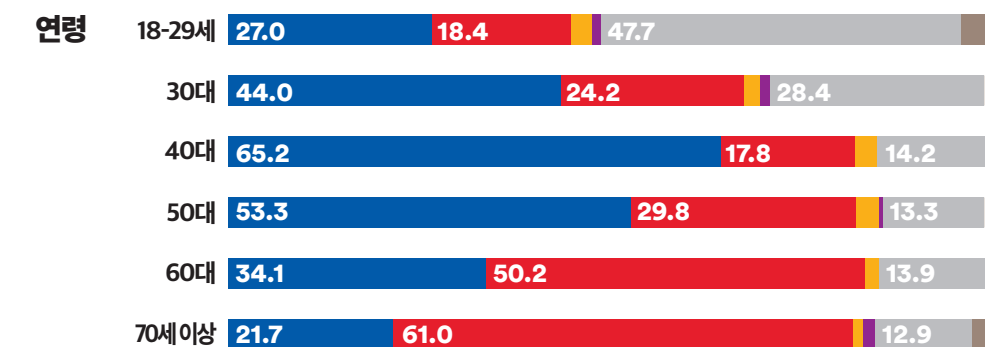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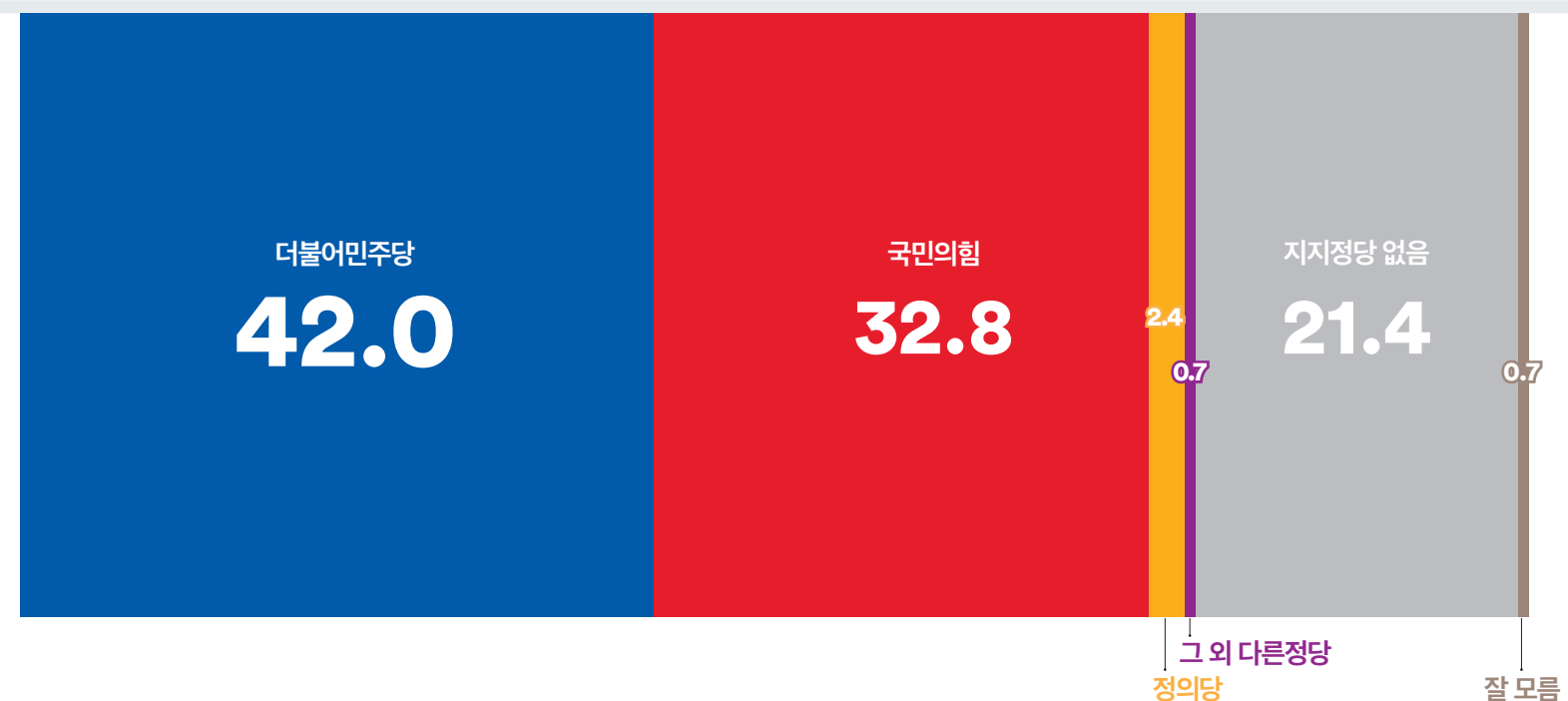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RS



CATI



지난 43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3%p 하락, 국민의힘 1.9%p 상승 (격차 8.4%p)
 지난 28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9%p 상승, 국민의힘 0.6%p 하락 (격차 9.2%p)
 양당 간 격차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세는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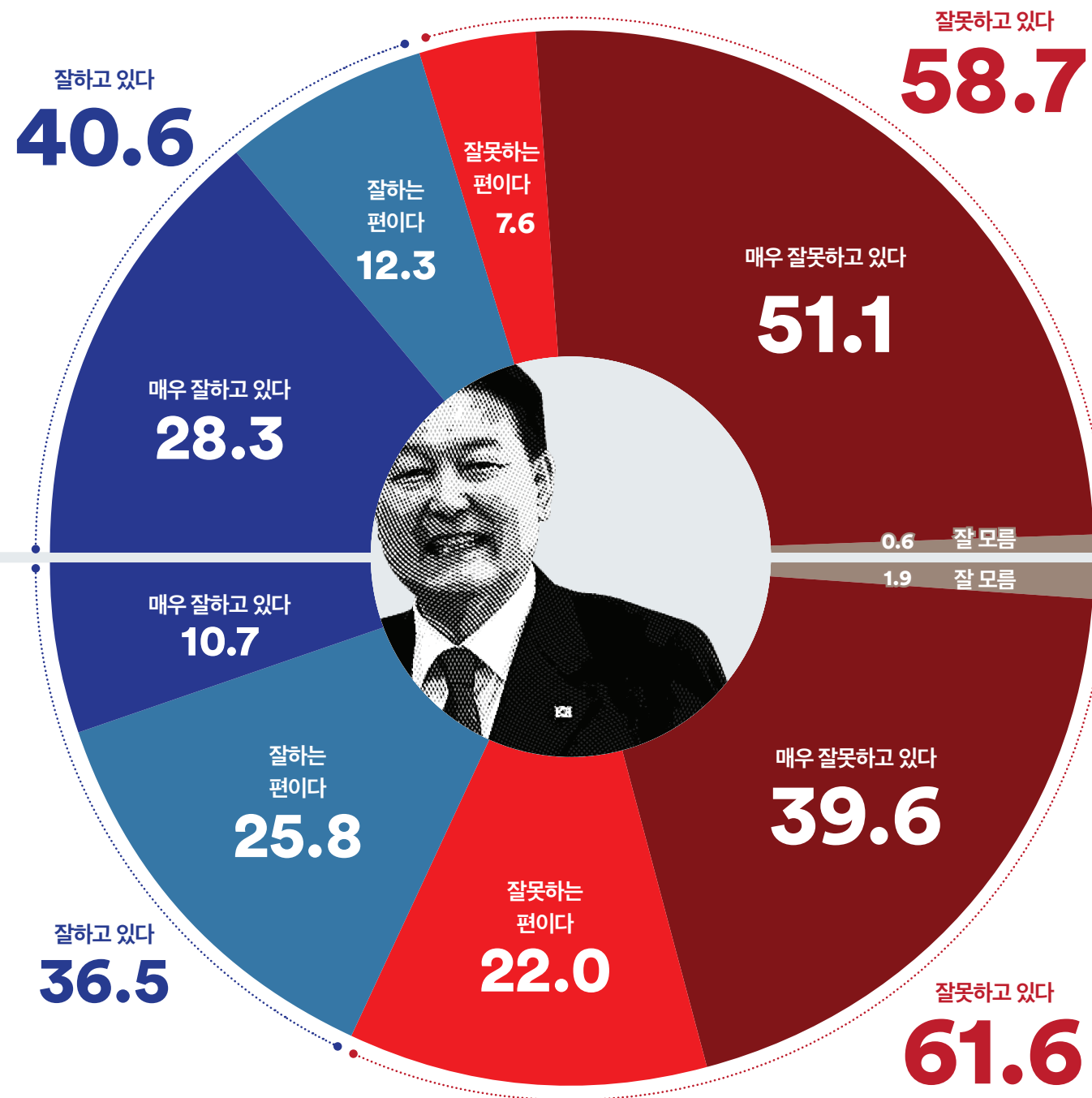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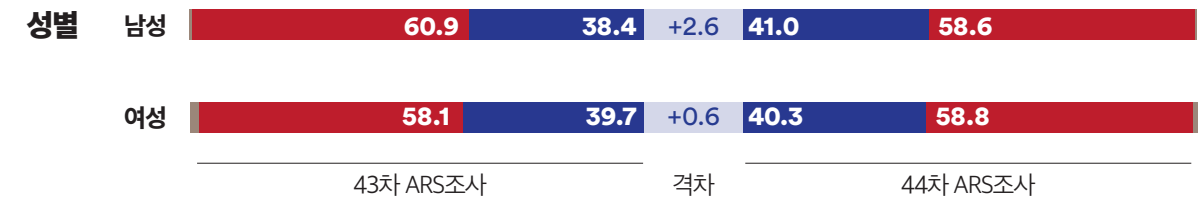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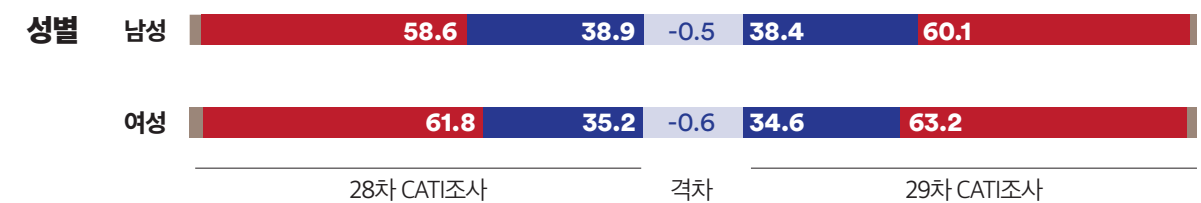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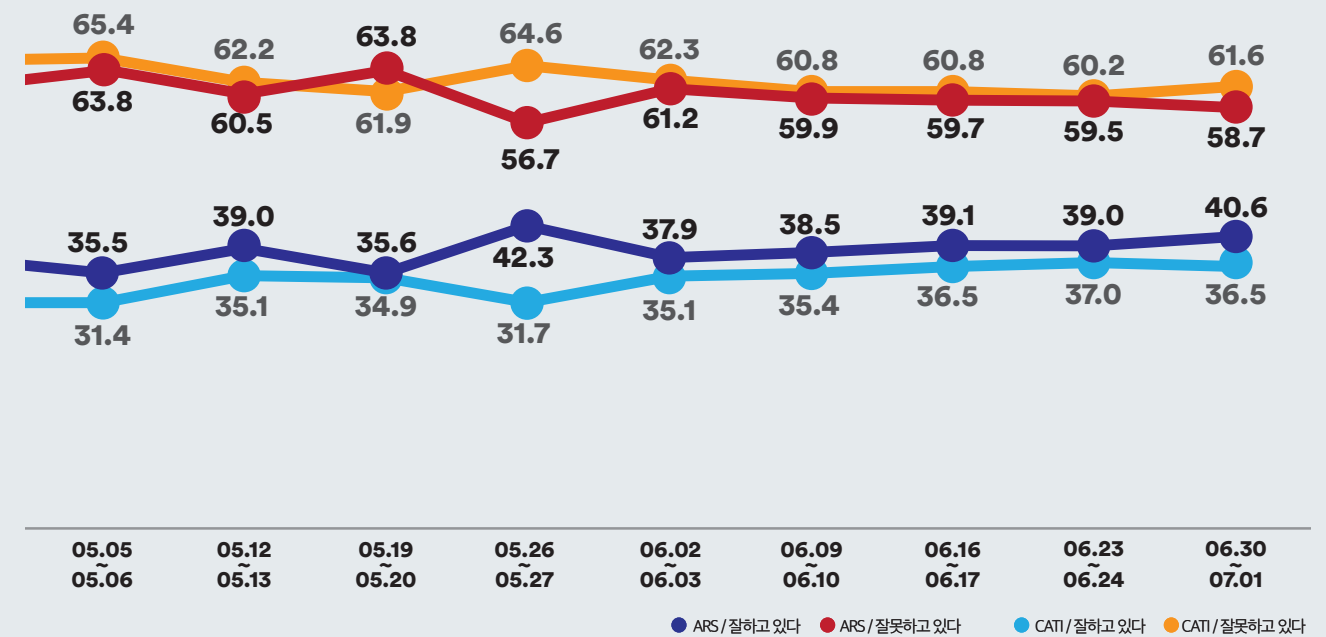
CATI



지난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1.6%p 상승, 부정평가 0.8%p 하락 (격차 18.1%p)
 지난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0.5%p 하락, 부정평가 1.4%p 상승 (격차 25.1%p)
 남·녀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 수도권·충청·호남권, 진보층·중도층에서 부정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격차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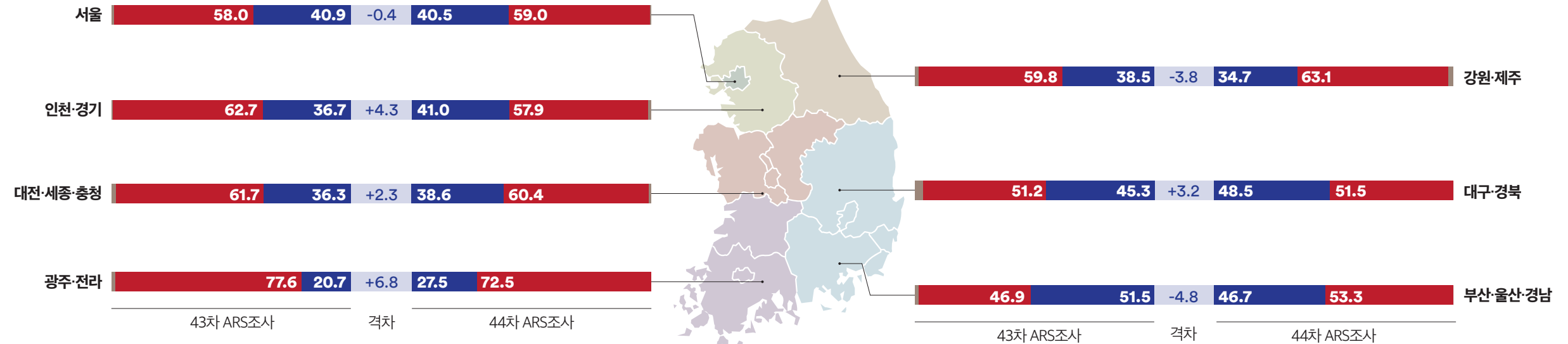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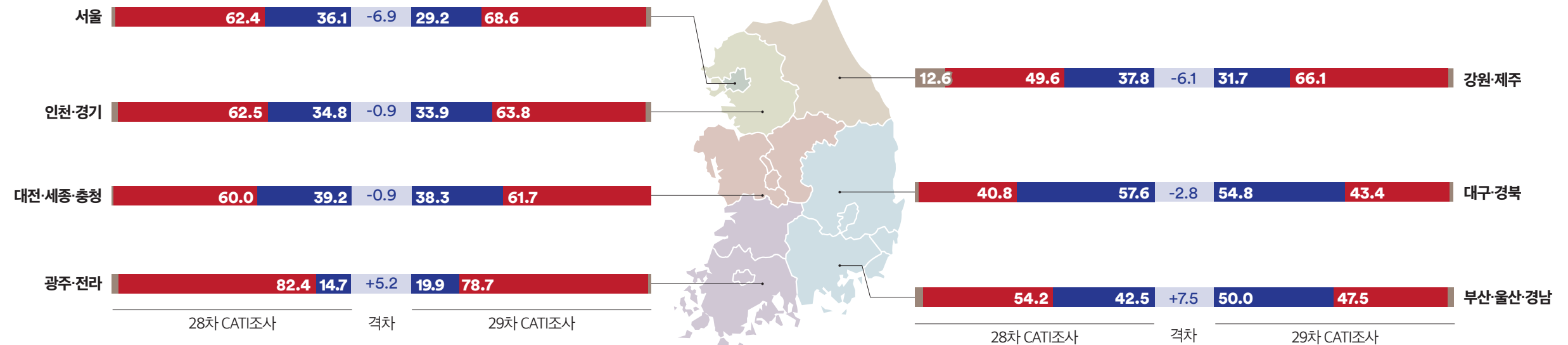
ARS

권역별



CATI

권역별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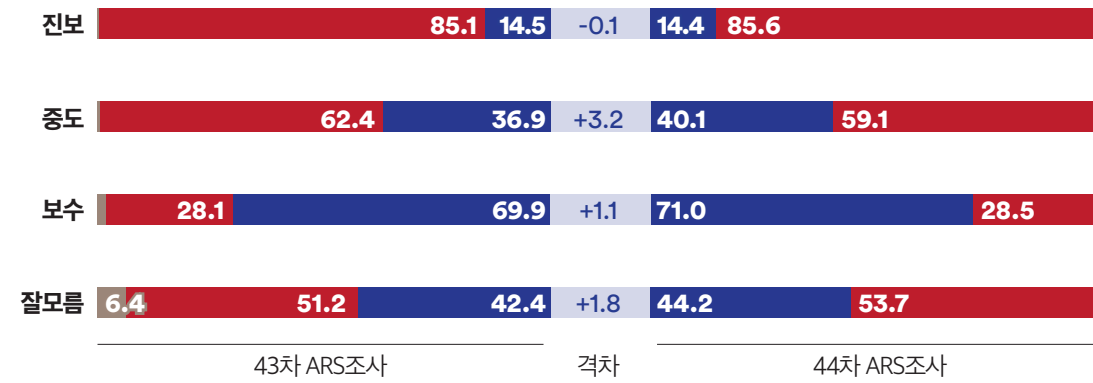
국정지표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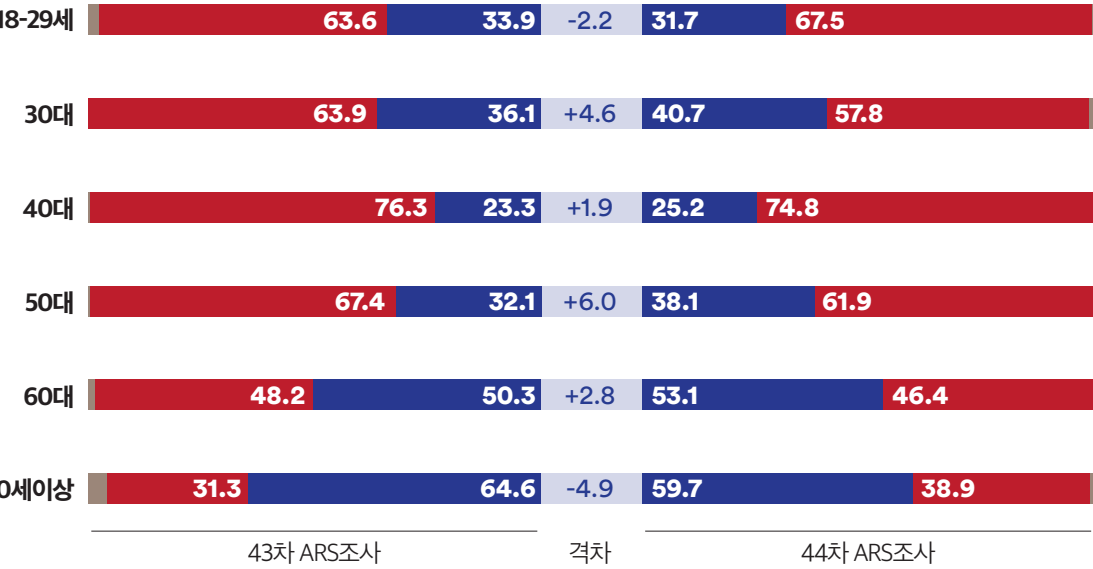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RS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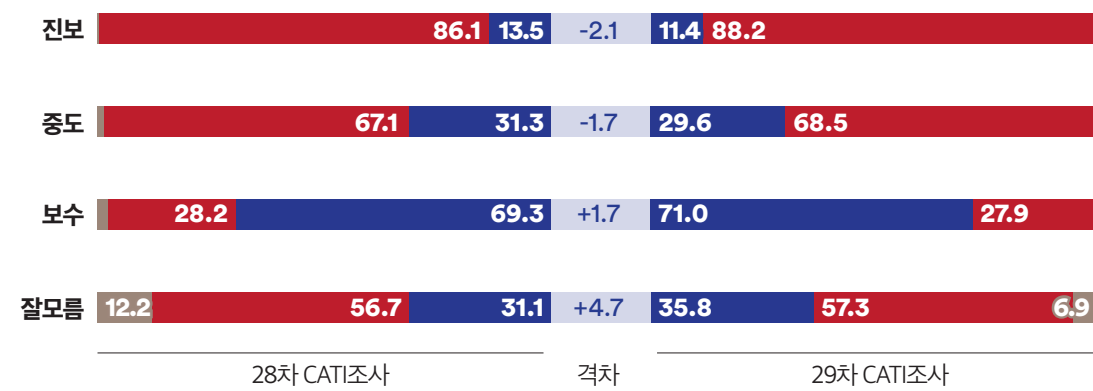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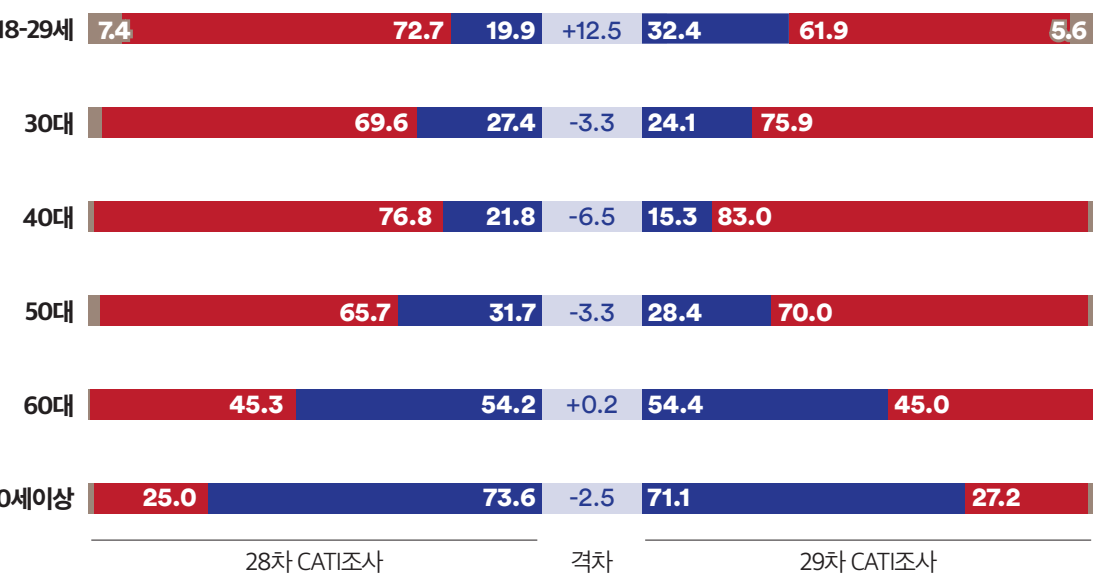


CATI

이념성향



연령대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4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자극적인 발언, 총선 이슈

ARS & CATI / CATI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의 발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장

두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다음 총선의 제1당은

제3의 신당

경찰 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보수 성향이 짙은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위촉되었습니다. 박인환 위원장은 국가 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반 국가 세력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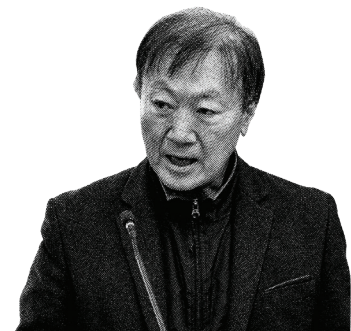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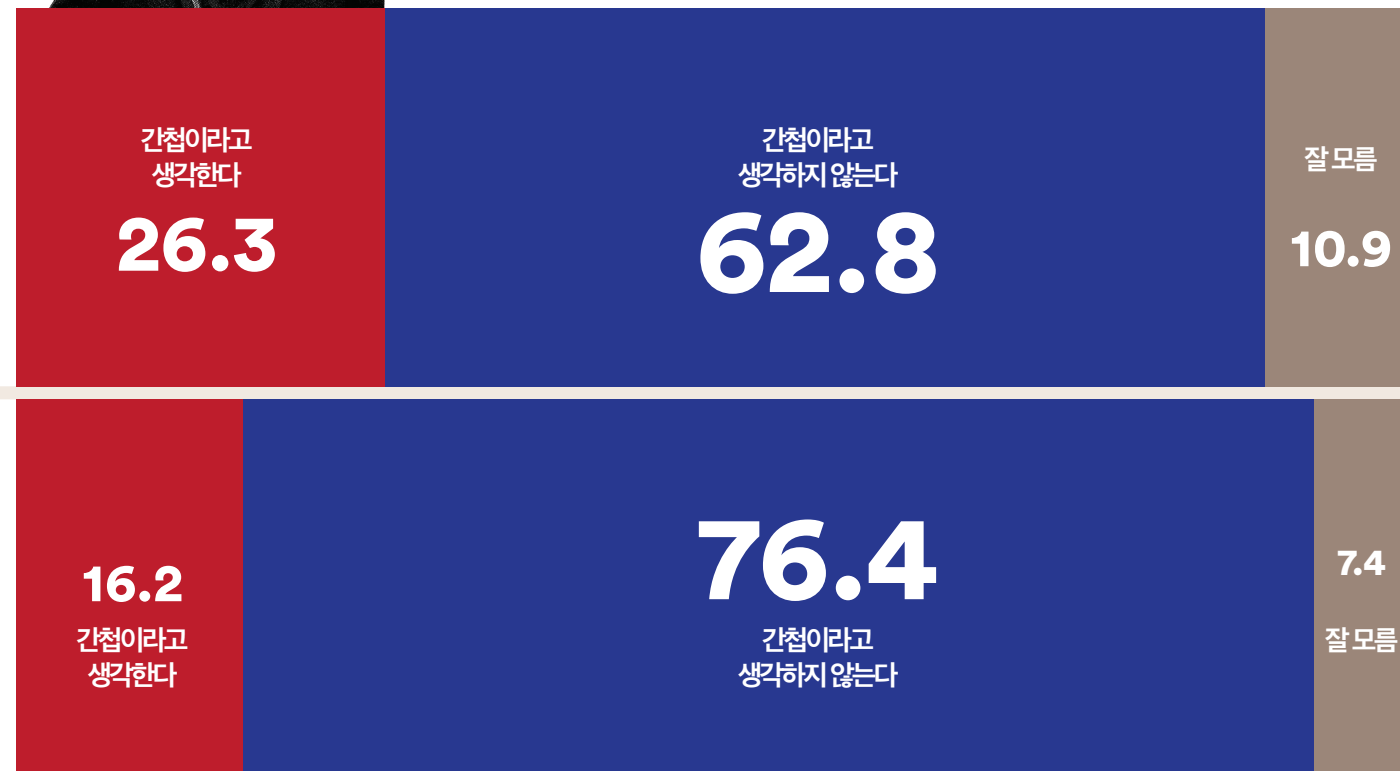
Q. 검찰 출신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은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문제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발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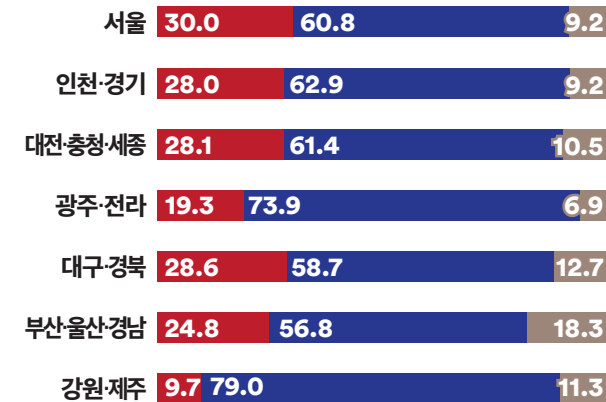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6개월이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 6.27일 박인환 위원장 발언]



두 조사 모두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TK지역에서도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 우세
 보수층은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를 보임 (ARS: 간첩이다 51.3% / 간첩이 아니다 32.7%) (CATI: 간첩이다 37.1% / 간첩이 아니다 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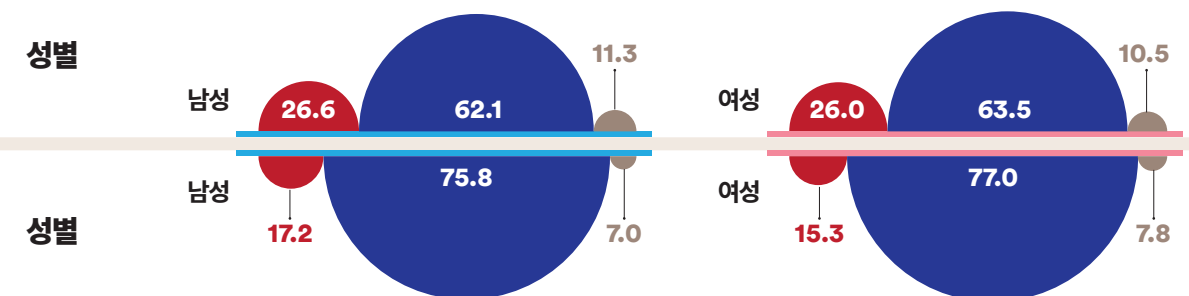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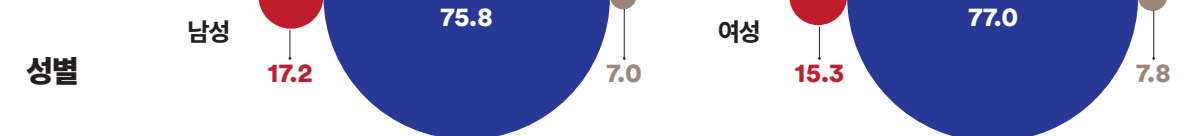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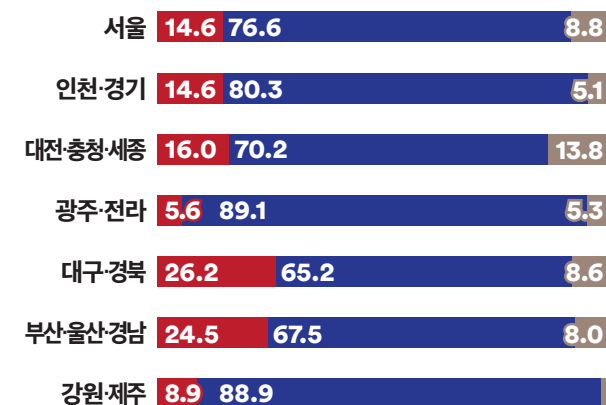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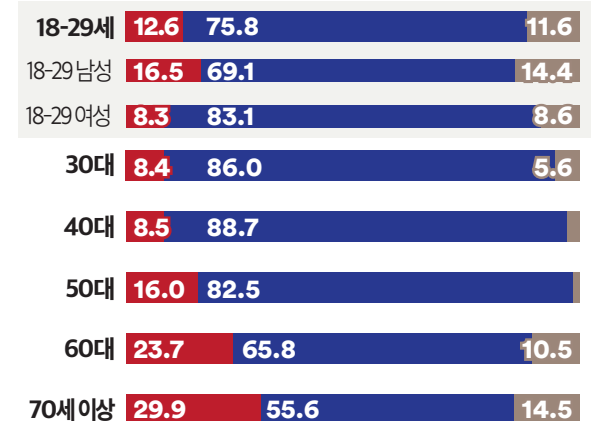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Red),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lue), 모르겠다 (Gr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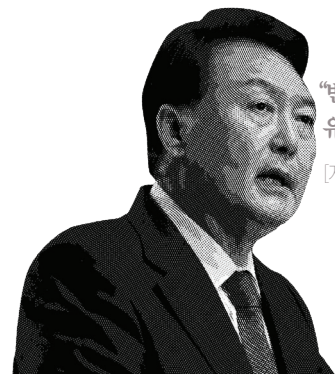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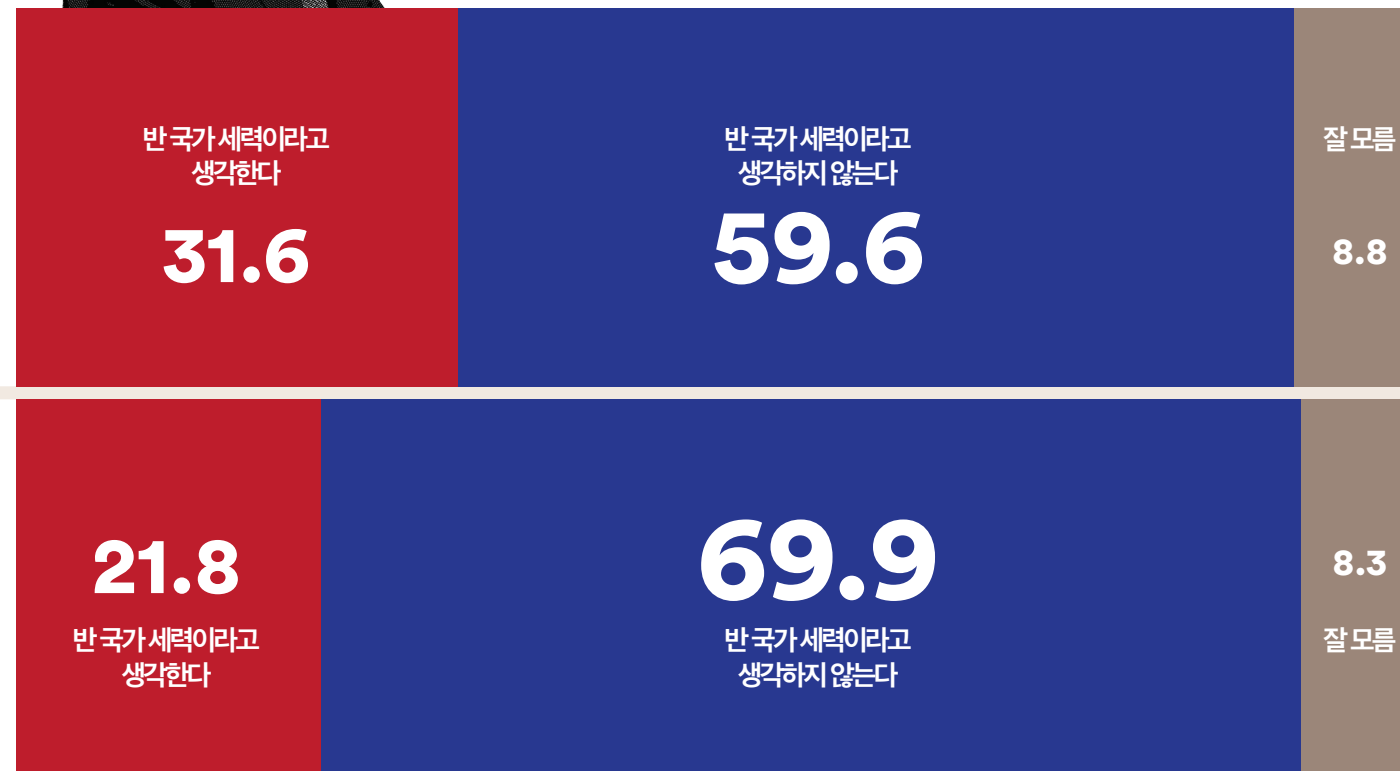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반 국가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 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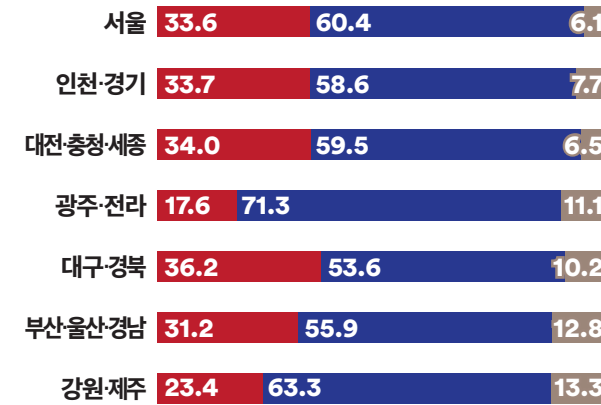
“반 국가 세력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유총연맹 행사, 2023.6.28. 윤석열 대통령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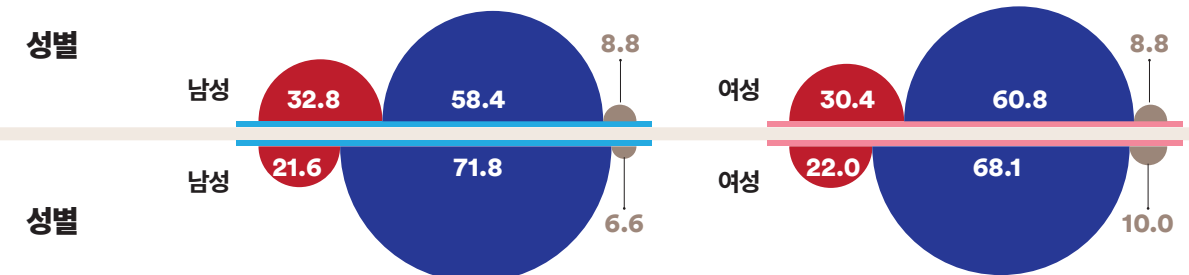


두 조사에서 모두 ‘반 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
TK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은 조사 방법에 관계 없이 모두 ‘반 국가 세력 아니다’란 응답이 우세
60대 이하 응답층 (ARS 조사는 30대 제외)에서는 ‘반 국가 세력 아니다’란 응답이 앞섰고, 70세 이상에서는 두 조사 모두 박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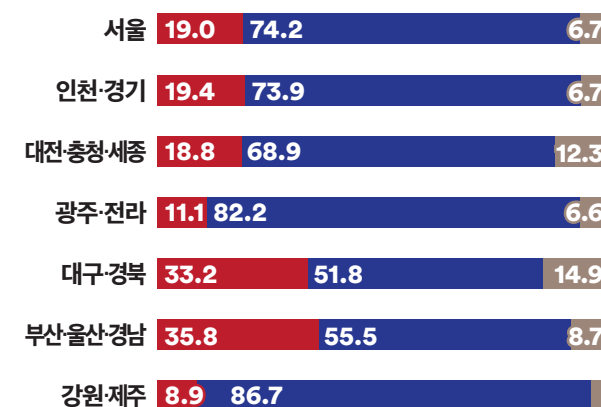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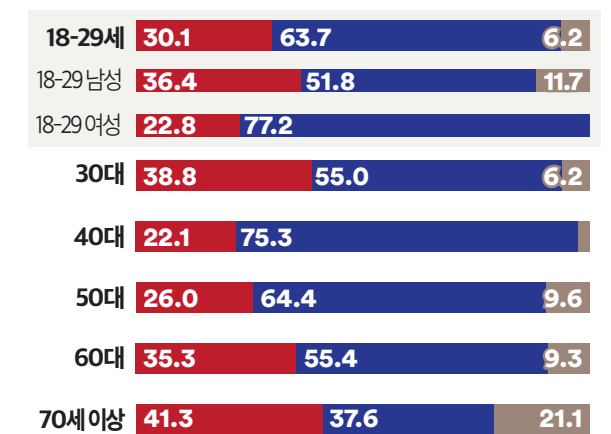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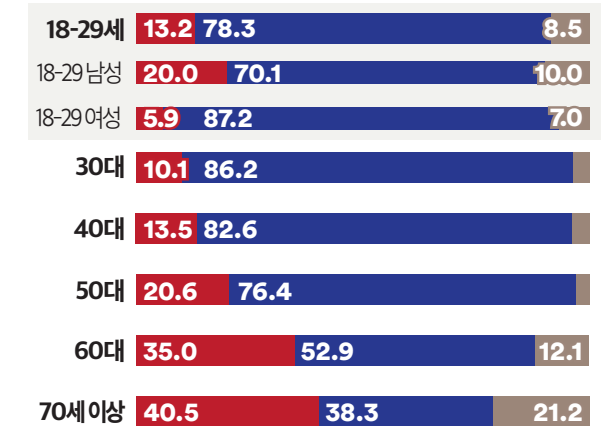
권역



연령



연령



반국가세력이다 반국가세력 아니다 모르겠다

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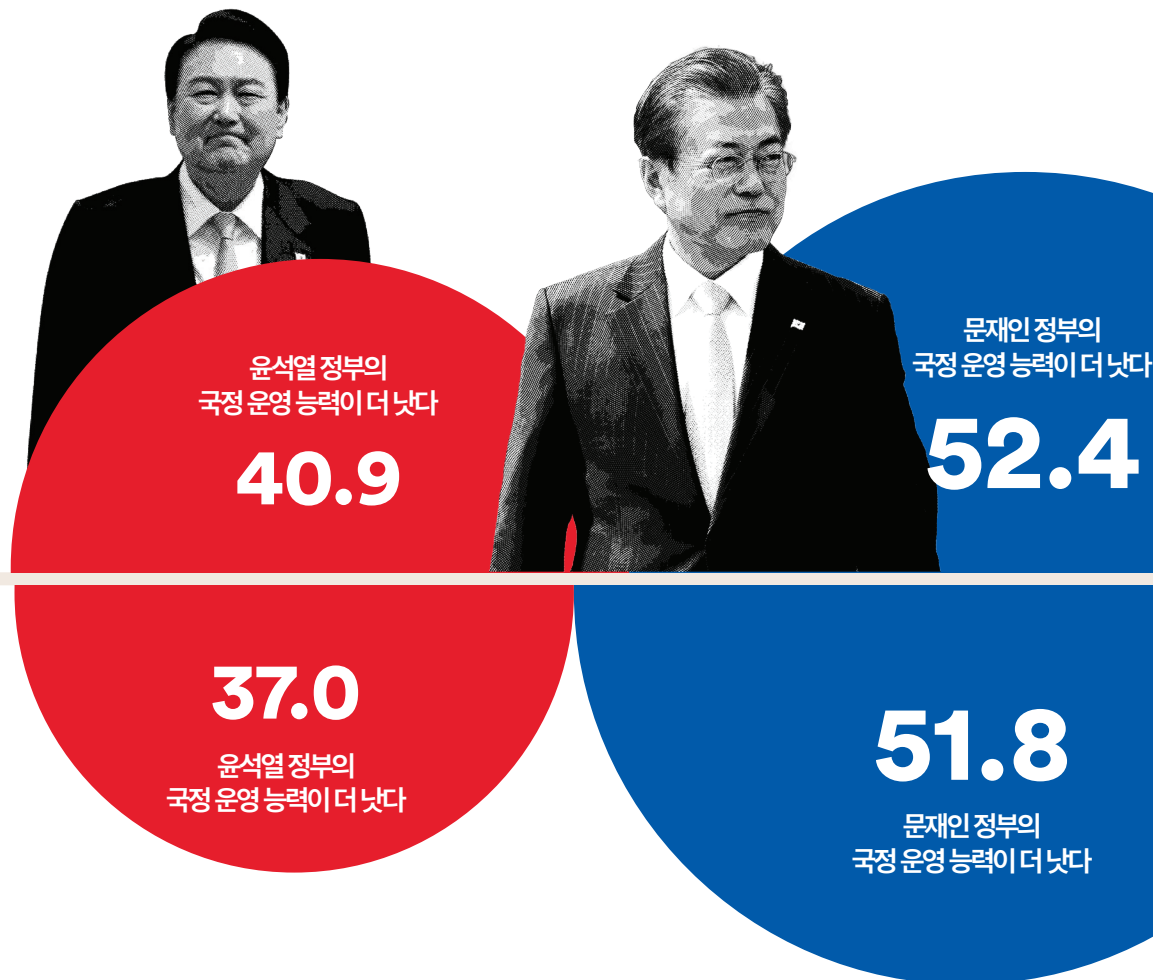
정치·사회 현안

두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

Q.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떤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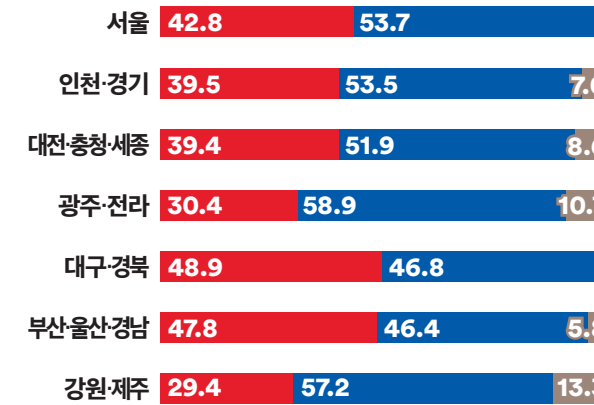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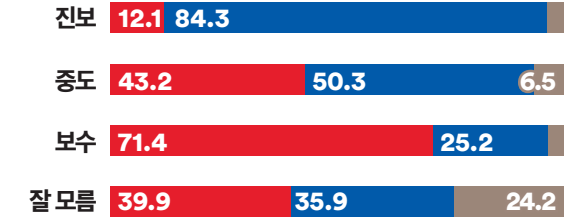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이 더 낫다'는 응답이 우세
 수도권, 충청, 호남, 강원·제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는 응답이 더 많음
 50대 이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는 응답이 앞섰고, 6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더 낫다'는 응답 앞섬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더 낫다'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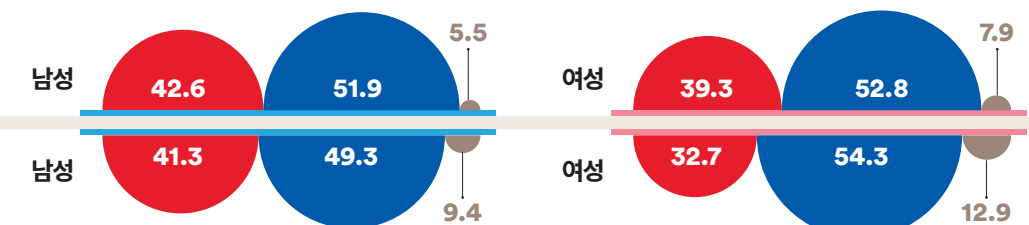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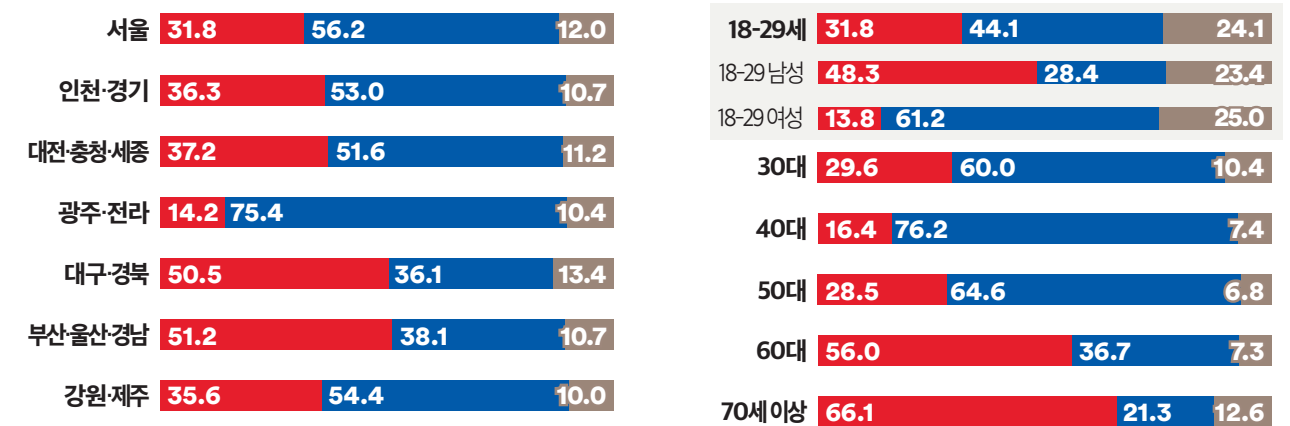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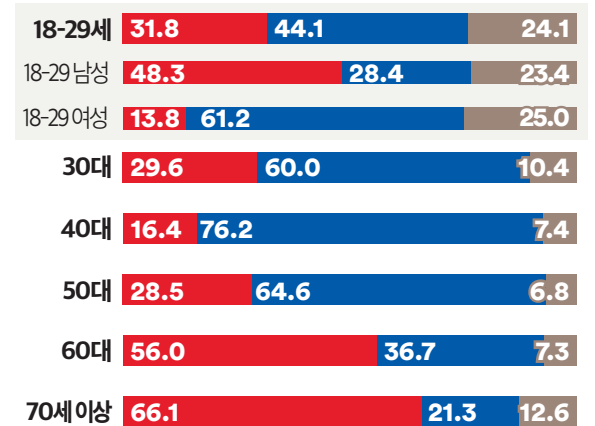
성별



연령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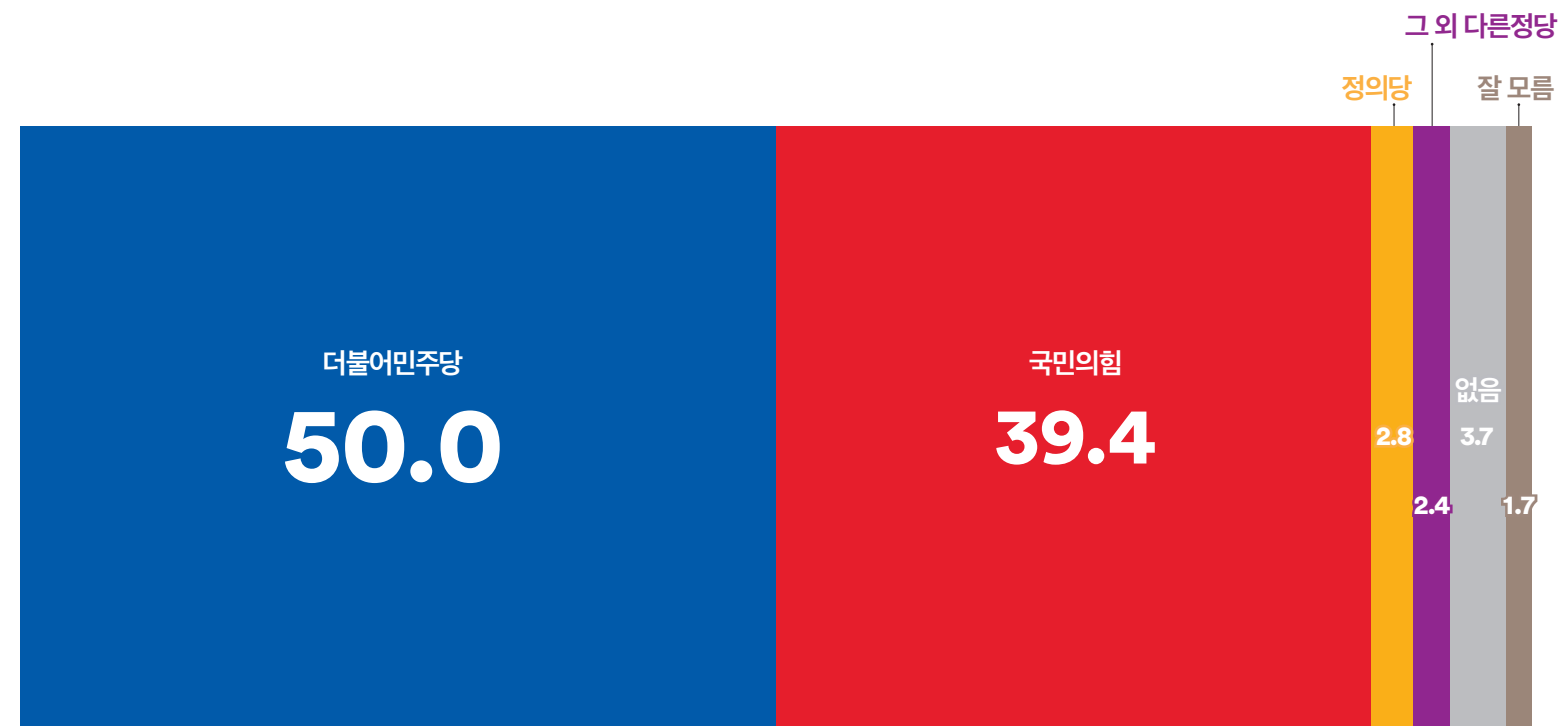
■ 윤석열 정부 ■ 문재인 정부 ■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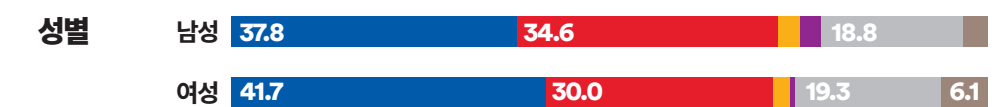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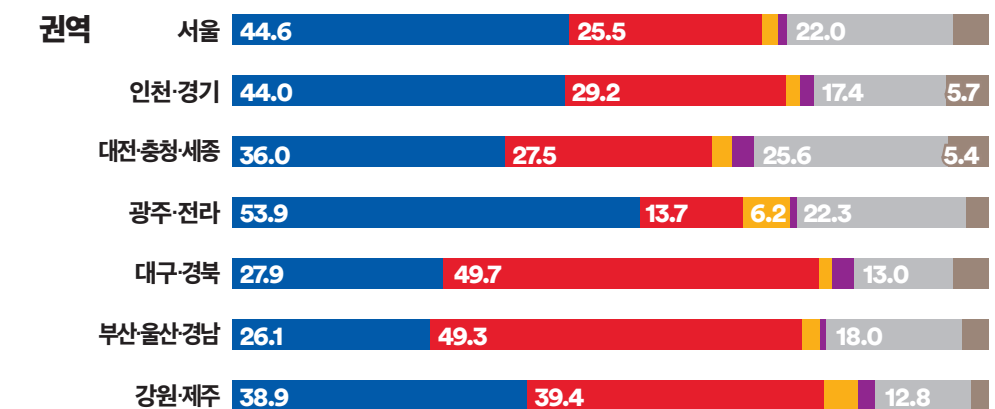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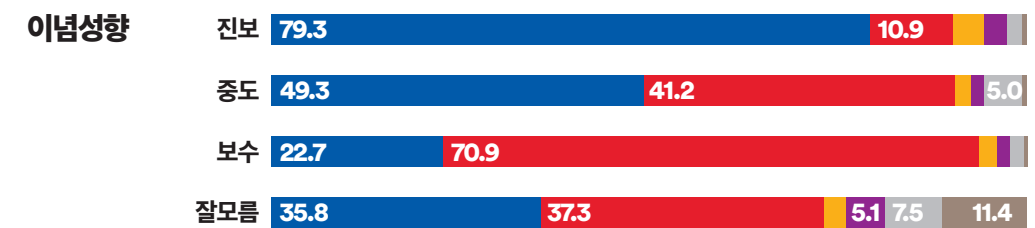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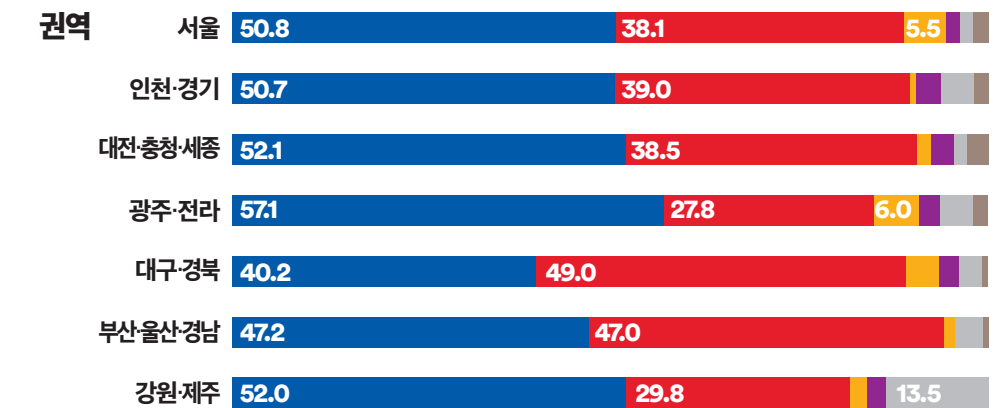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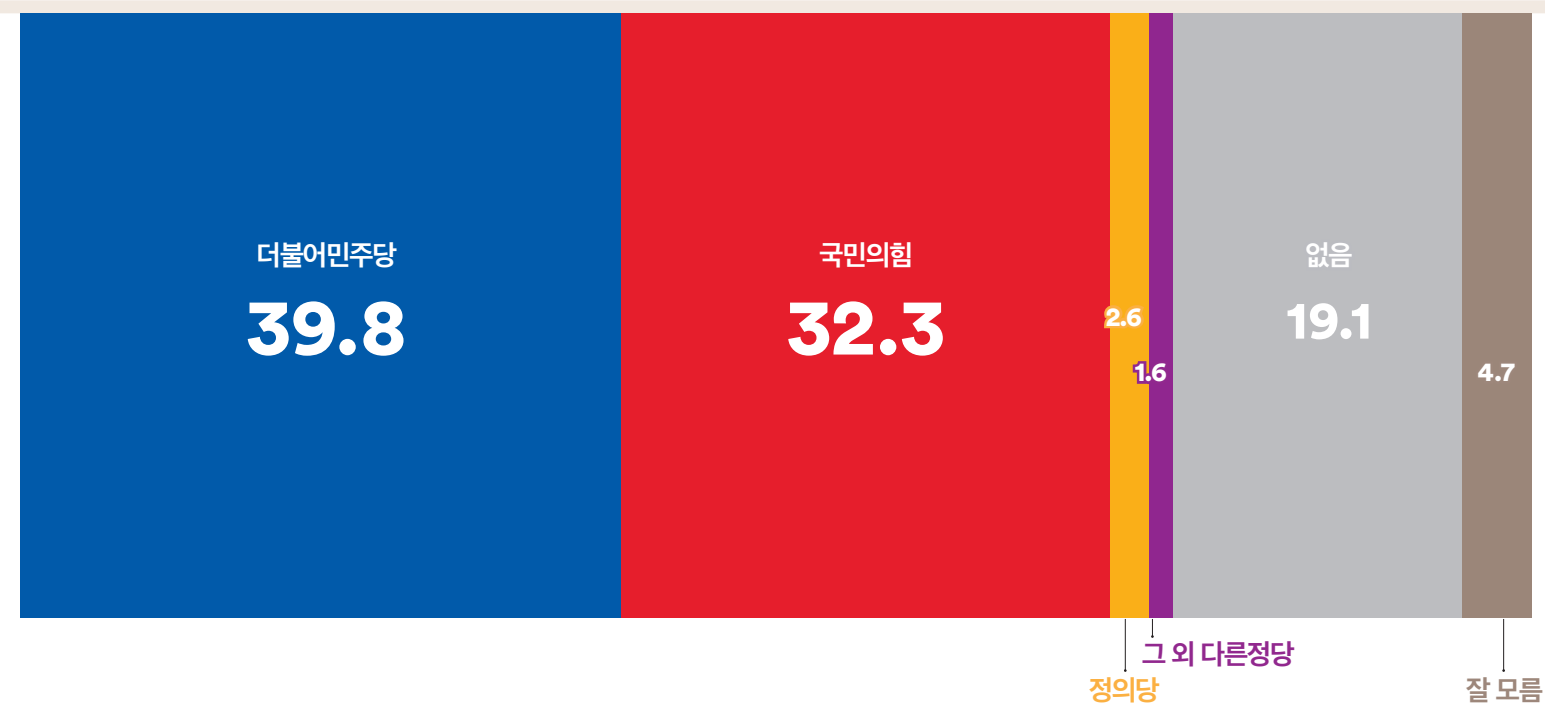
다음 총선의 제1당은

Q. 다음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획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RS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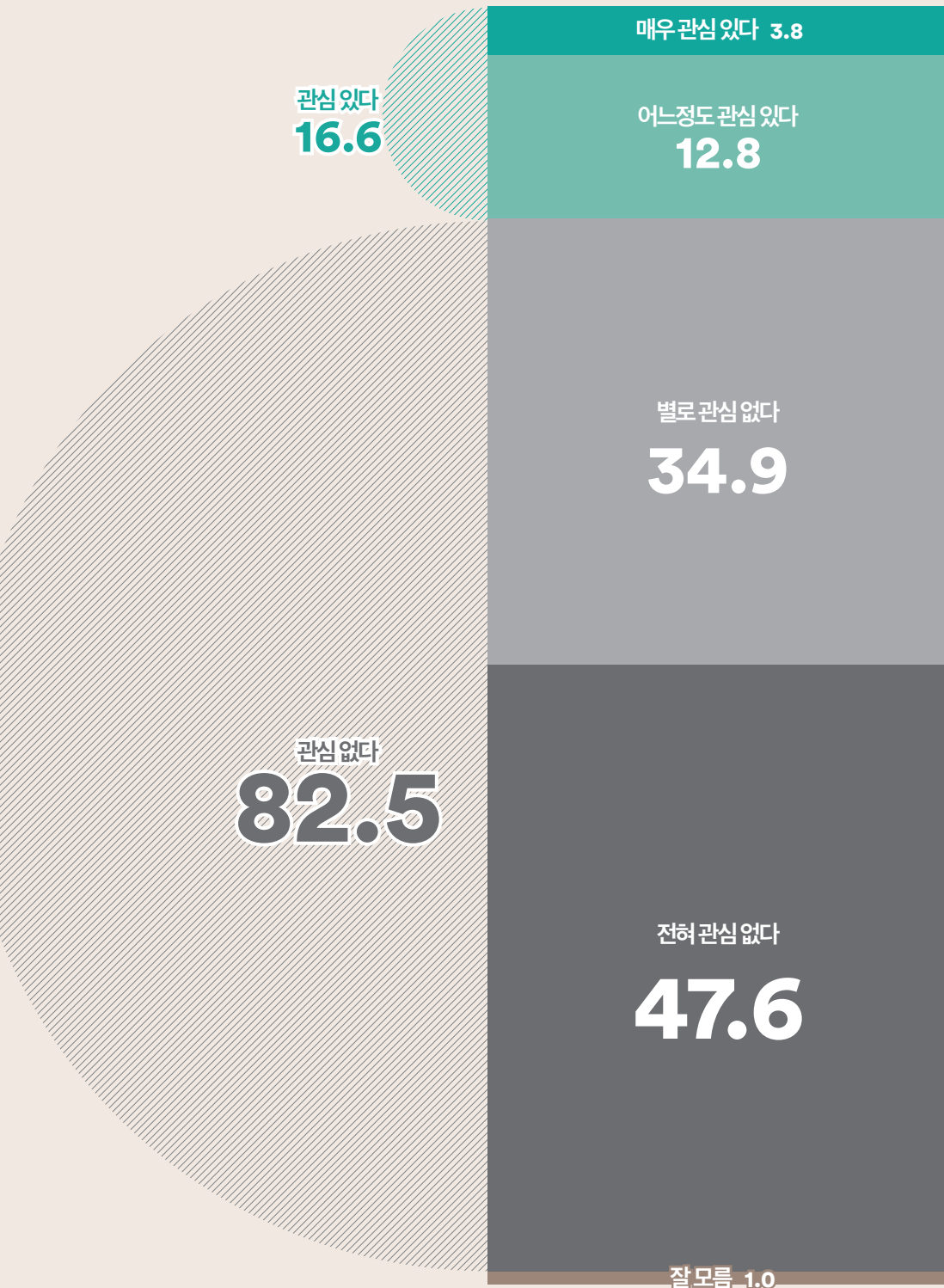
두 조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란 응답이 우세
 TK, PK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ARS 경인, 호남권 / CATI 수도권, 호남권 우세)
 40·50대는 '더불어민주당', 70세 이상은 '국민의힘'이 우세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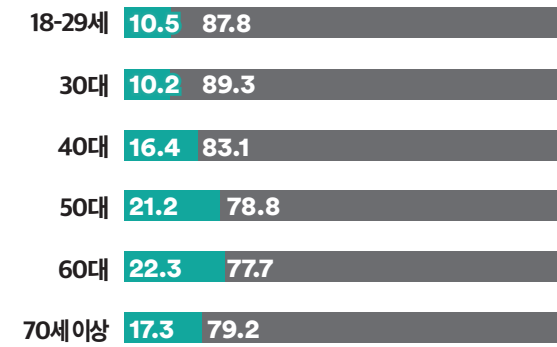
제3의 신당

Q. 최근 금태섭, 양향자 등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습니다. 신당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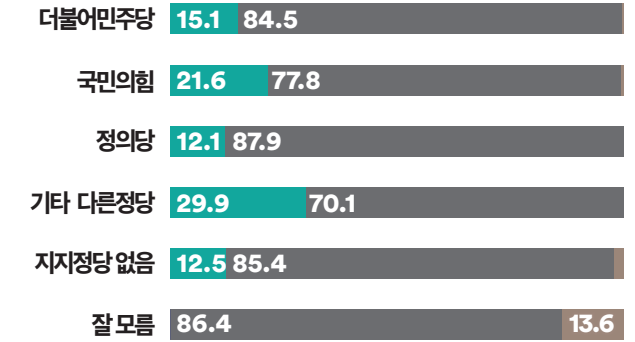


10명 중 8명 이상은 '신당 창당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 압도적 우세
연령대 by 성별 변수를 포함해 모든 성·연령·권역 변수에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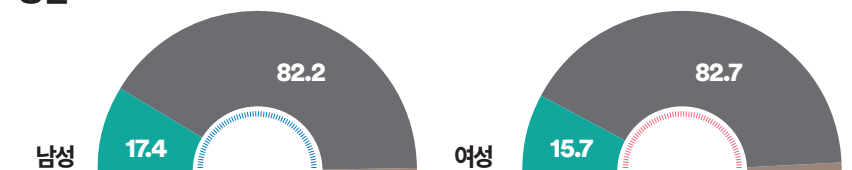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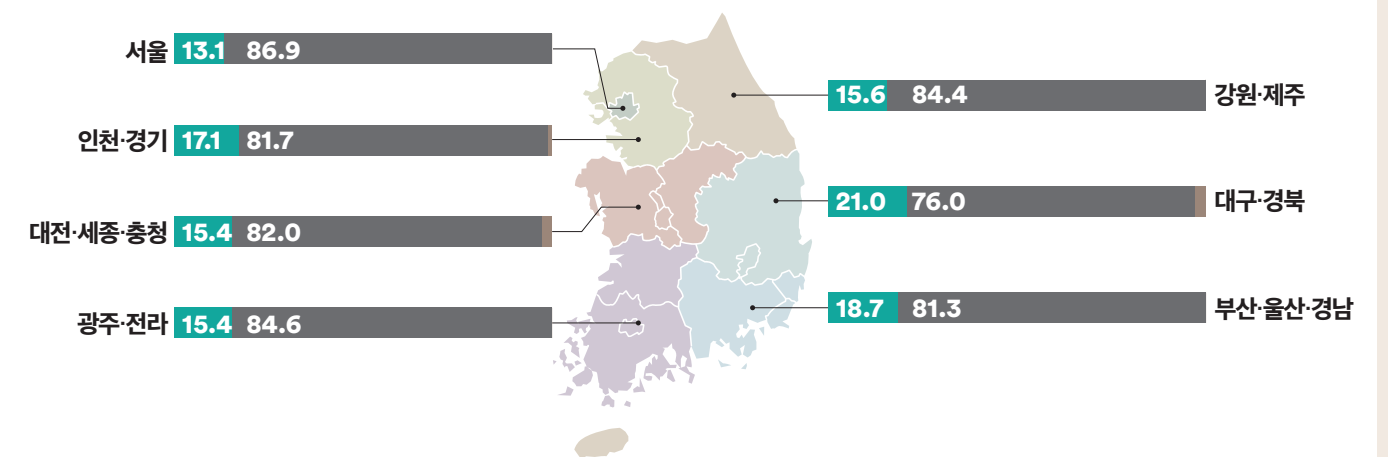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관심 있다 관심 없다 모르겠다



여론조사꽃 제4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교육 이슈

ARS & CATI / CATI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횃집 회식 캠페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두 당의 대응 방향

특목고와 사교육

국민의힘 지도부는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자들을 위한 캠페인으로 ‘횃집 회식하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4일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방사능 괴담으로 어민들은 물론이고 횃집 사장님들과 수산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국민들께선 괴담에 속지 말고 우리 수산물을 변함없이 소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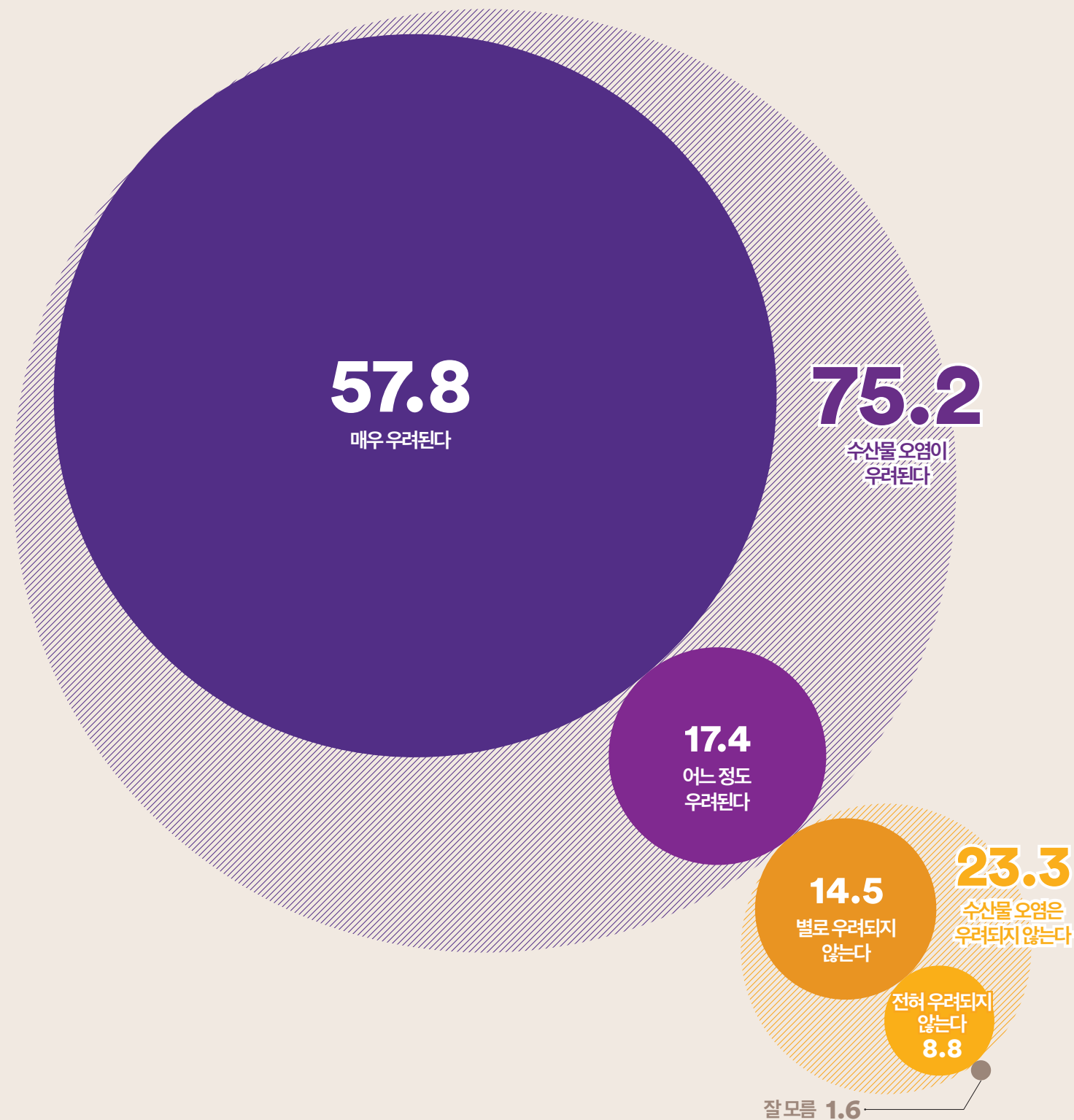
두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응답을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정치·사회 현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Q.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오염에 대해 얼마나 우려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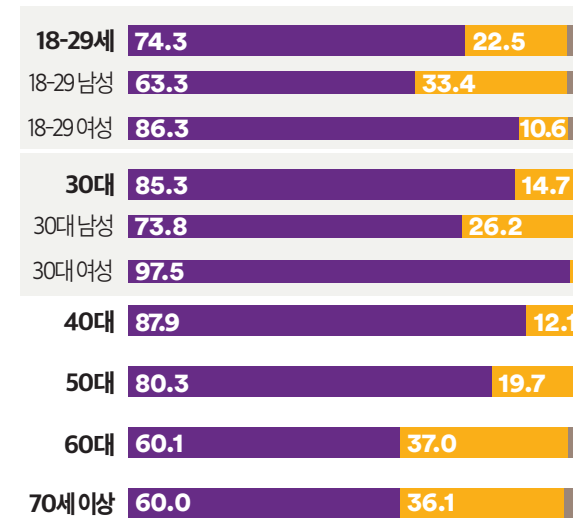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이상이 '우려된다'라고 응답. 5명 이상은 '매우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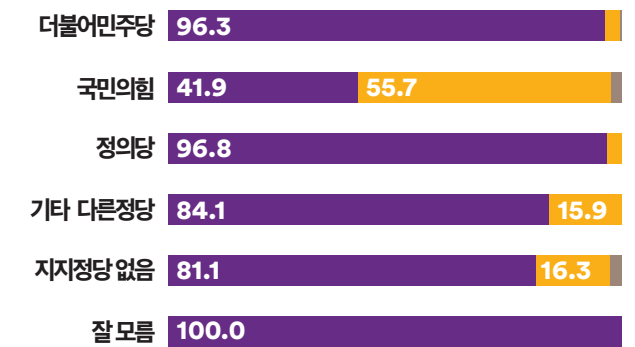
모든 성별 by 연령층에서 우려된다는 응답이 높고 특히 30대 여성층 97.5%, 40대 여성층 90.7%가 우려된다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우려됨 41.9% / 우려되지 않음 55.7%)에서만 추세와 다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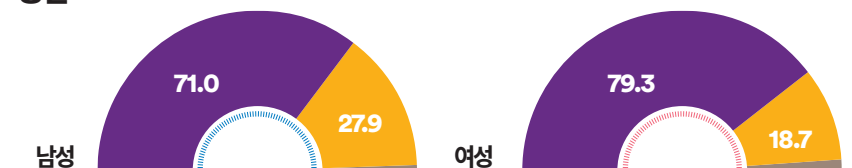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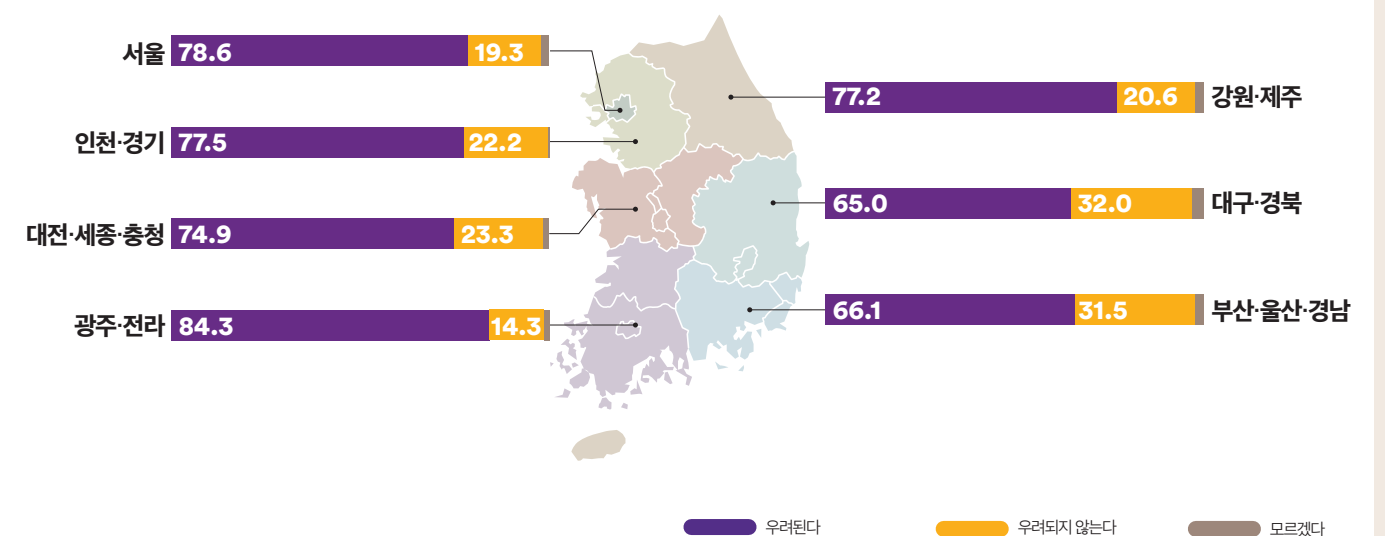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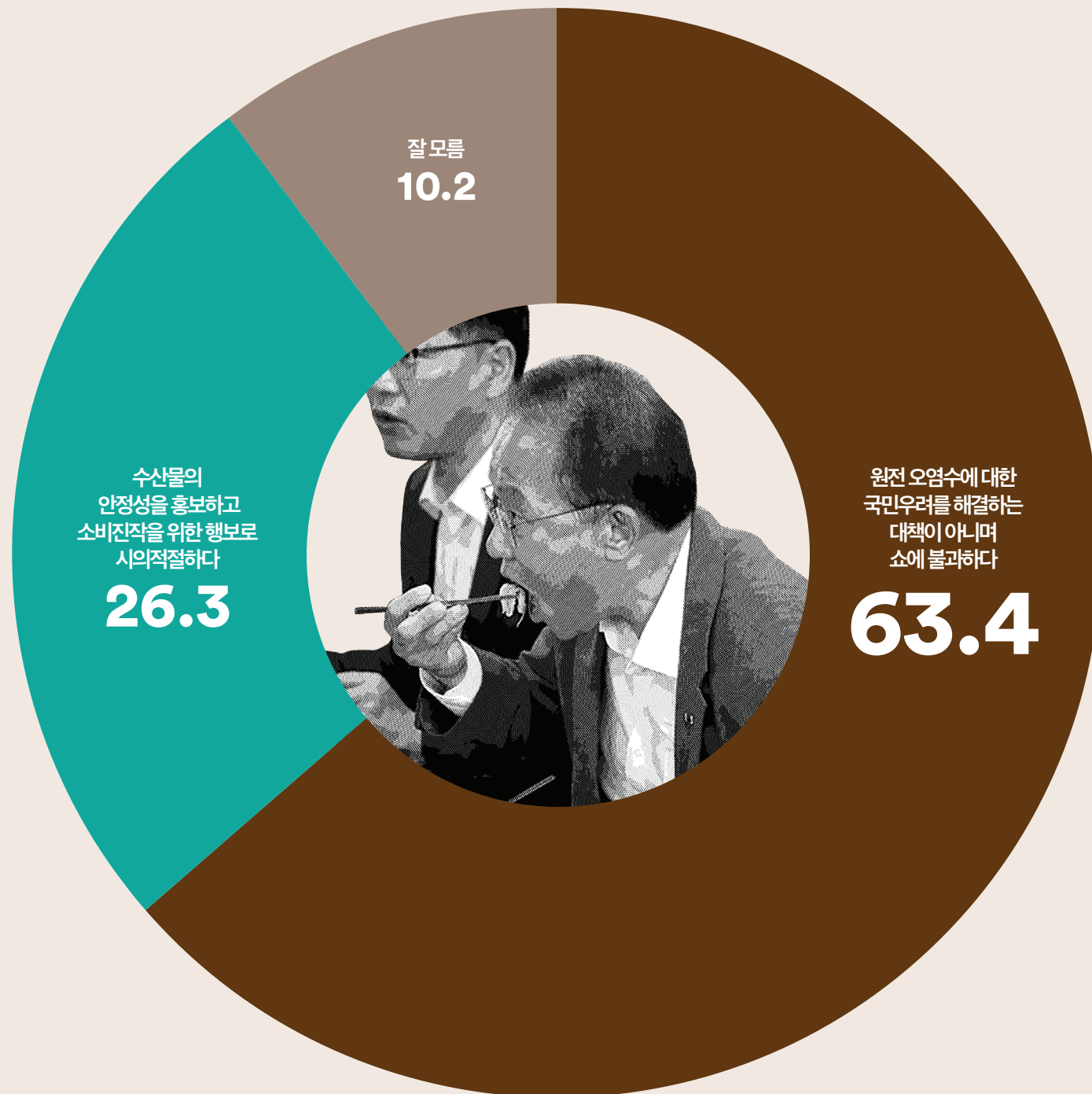
권역



정치·사회 현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핫집 회식 캠페인

Q. 국민의힘 의원들이 핫집 회식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6명 이상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며 쇼에 불과하다'라고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과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 권역, 성별, 정당지지층에서 '쇼에 불과하다'란 응답이 앞섬
 18~29세 응답층의 경우, 모든 세대 중 남녀 간 응답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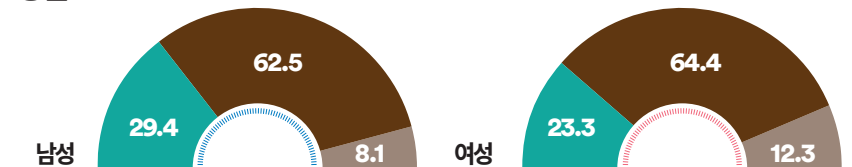
연령

18-29세	23.9	59.1	17.0
18-29 남성	32.9	48.7	18.4
18-29 여성	14.1	70.4	15.5
30대	15.2	79.4	5.4
30대 남성	22.6	71.1	6.3
30대 여성	7.4	88.2	
40대	16.2	79.3	
50대	23.7	72.5	
60대	41.1	50.1	8.9
70세 이상	39.8	34.8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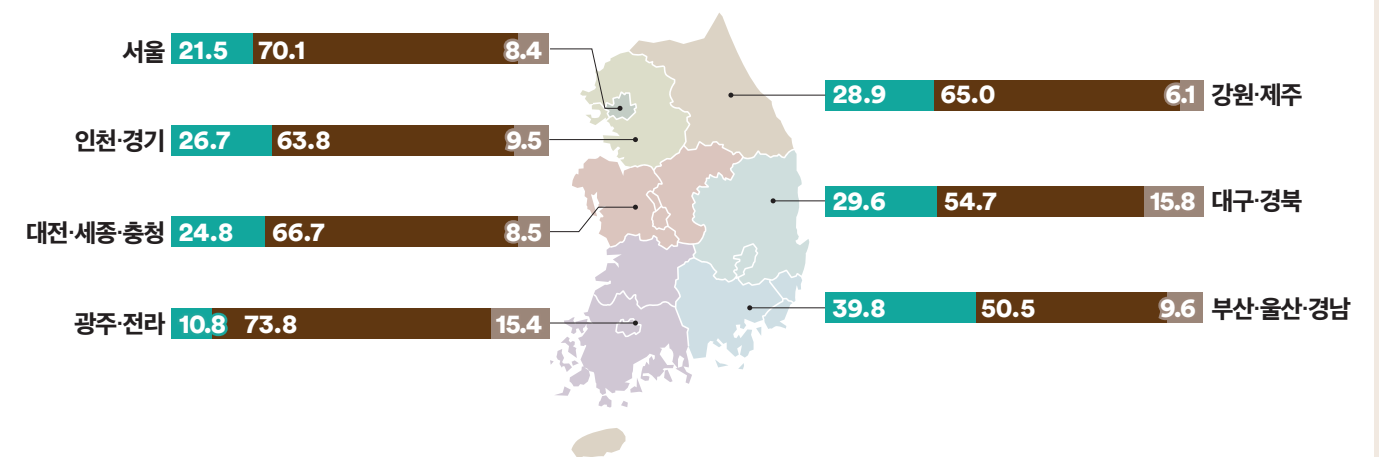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6.7	89.4	
국민의힘	60.9	26.4	12.7
정의당	95.7		
기타 다른정당	15.9	84.1	
지지정당 없음	15.5	66.2	18.3
잘 모름	27.1		72.9

성별



권역



시의적절하다 쇼에 불과하다 모르겠다



정치·사회 현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두 당의 대응 방향

Q.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이 국민의힘 표결 거부와 퇴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단독 상정되었습니다. 양당 대응에 대한 다음 의견 중 무엇에 더 공감하십니까?

31.6

일본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국민의힘의 행보가
더 적절했다

“자세히 읽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건 도저히 저희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2023.6.27,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발언]

“결의안 단독처리는 서로 약속한 사항을 위반한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쿠시마 청문회와 관련된
양당의 합의는 파기된 겁니다”
[2023.6.30, 결의안 채택 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56.5

국민 우려를 고려해
단독으로라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더 적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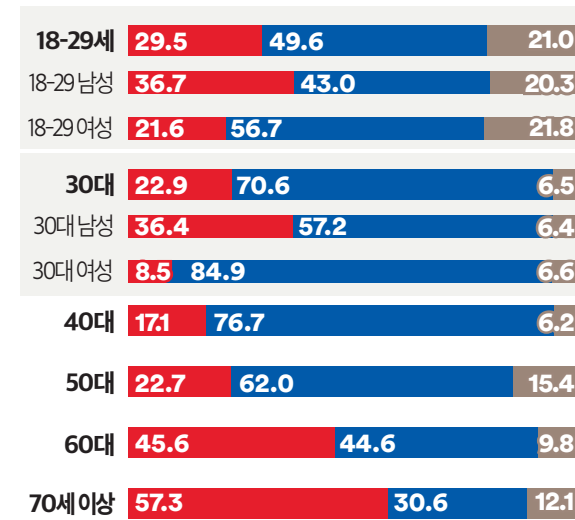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생산자들의 생존권
이런 것들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그 의사를 대변하겠다는데...”
[2023.6.27,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발언]

“국민의 강렬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하는 데
국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2023.6.30, 결의안 채택 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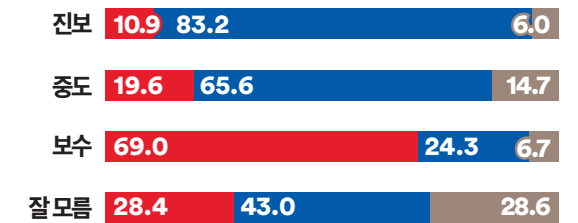
11.9
잘 모름

10명 중 5명 이상은 ‘국민 우려를 고려해 단독으로라도 상정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더 적절했다’라고 응답
TK, PK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절했다’는 응답이 앞섬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적절했다’, 7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적절했다’고 응답, 60대는 박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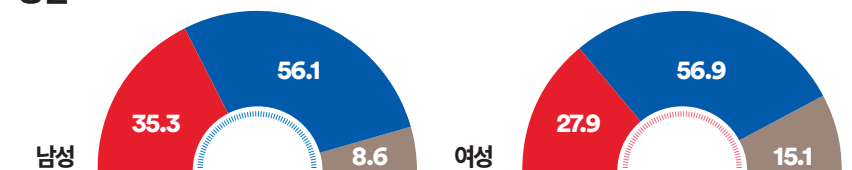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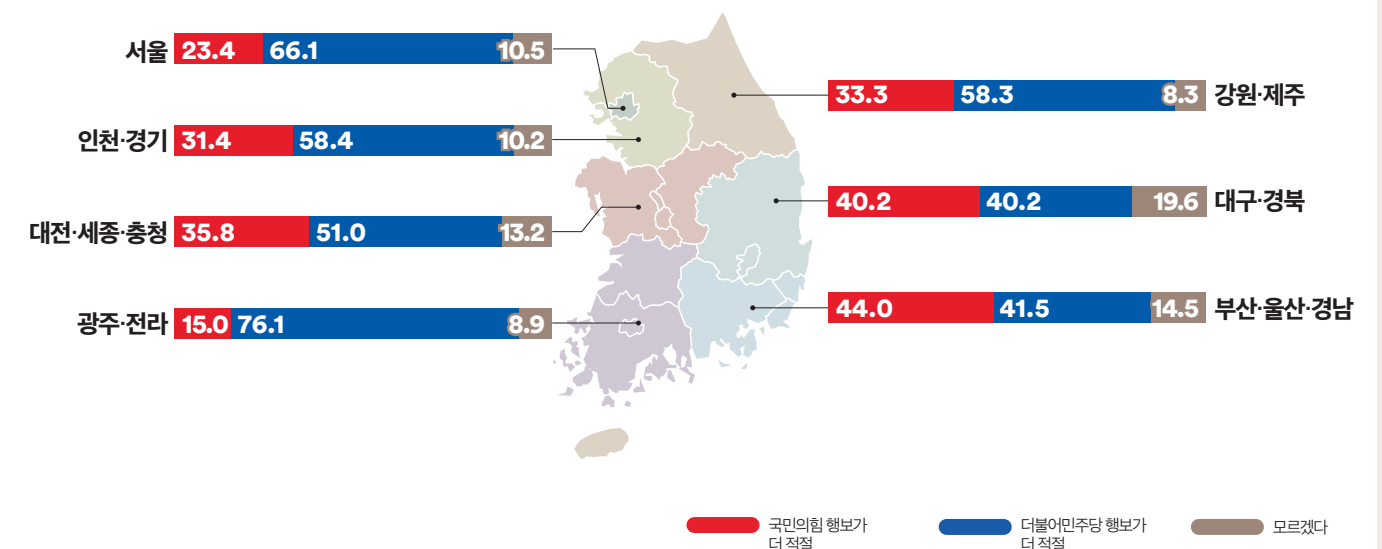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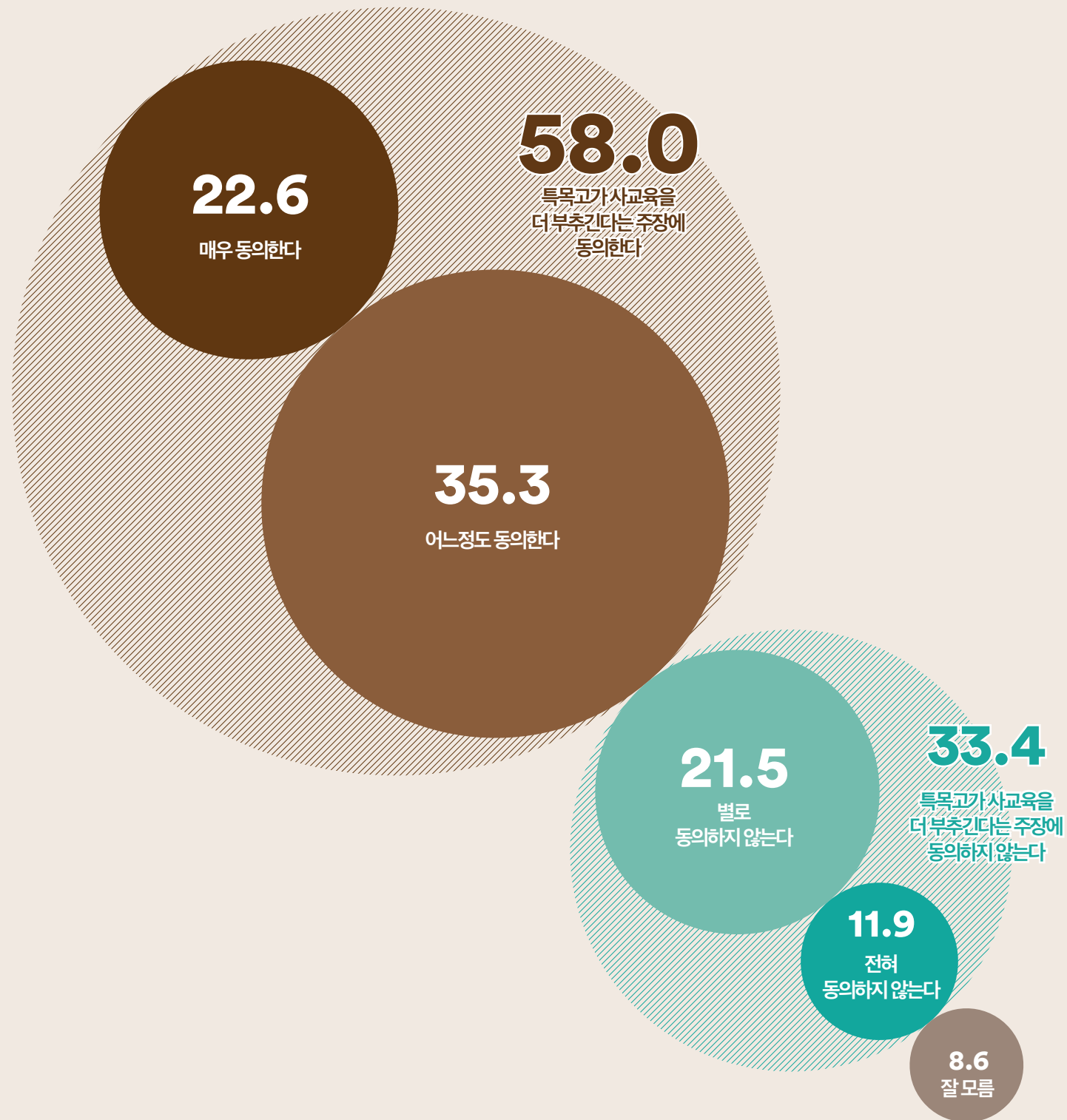
권역



정치·사회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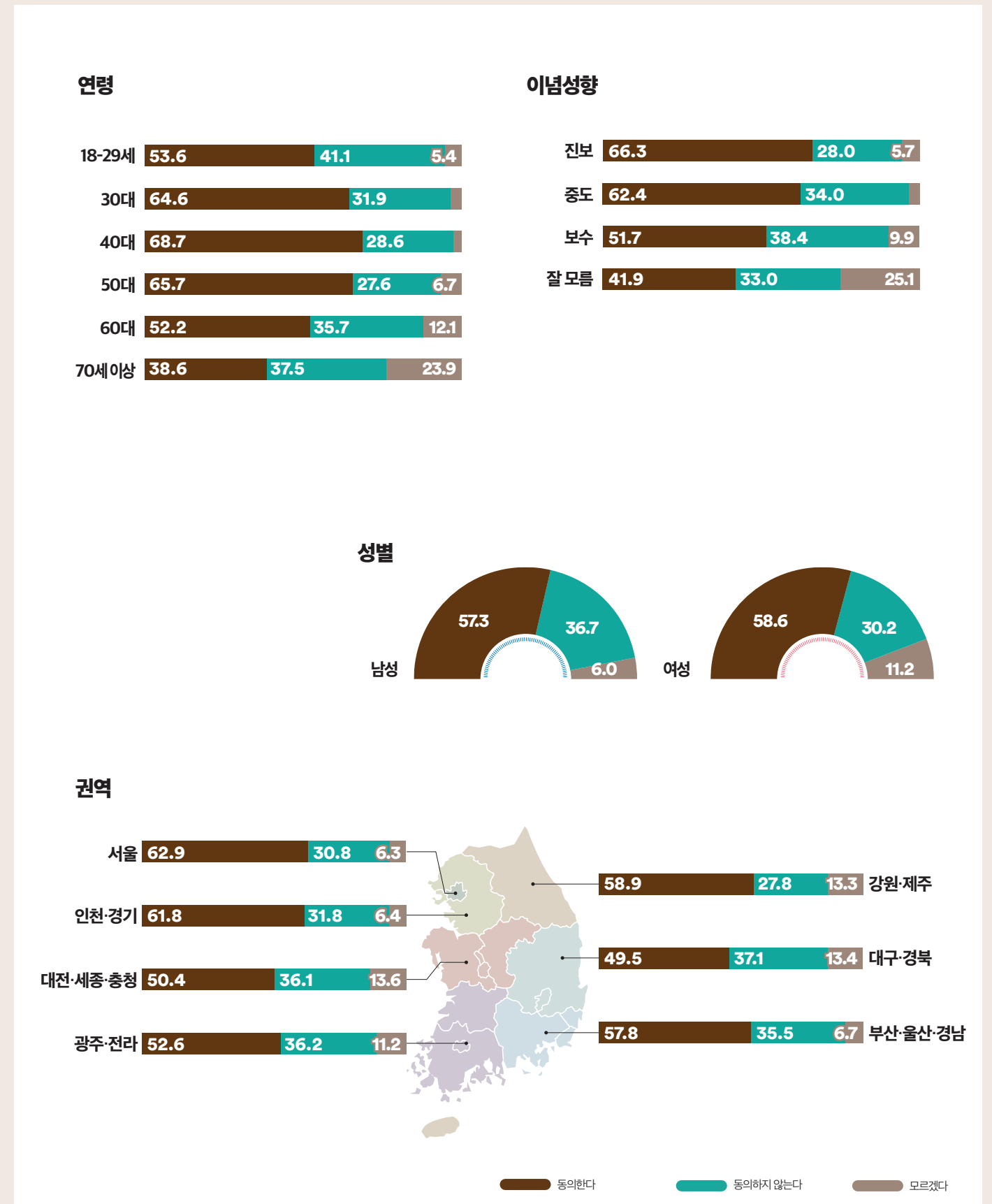
특목고와 사교육

Q. 정부가 외교, 국제고 등 특목고 자사고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특목고가 오히려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명 중 5명 이상은 '특목고가 사교육을 더 부추긴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

모든 권역,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앞섰고 70세 이상은 동의·비동의 응답이 박빙



여론조사꽃 제46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 |



여론조사꽃